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
발신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윤가브리엘) 사무실 없음, http://www.aidsmove.net/ 연락: 권미란(rmdal76@gmail.com), 016-299-6408)
날짜	2011년 3월 17일 (총 매수 1매)

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허가-특허 연계는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그것이 한국 제약산업과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의 접근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매우 불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용·편익 비교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재편되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라는 추상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을뿐이고, 의약품 가격과 건강보험재정 및 환자의 접근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한국제약협회에서 세부절차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해관계인 협의과정을 거쳐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역시 의약품 가격 및 건강보험재정, 환자의 접근권에 관한 협의과정이 없었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환자 및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는 에이즈감염인 및 환자의 건강권과 약 먹을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로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환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해당사자인 환자 및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도 않은 약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